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육식은 동시에 옹호 가능한가?*

최 훈**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 윤리학

주요어 육식, 동물 권리론, 동물 해방론, 대체 가능성 논변, 심어, 데이비스

요약문

이 논문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두 논변인 동물 권리론과 동물 해방론에서 육식이 옹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동물 해방론에서는 동물을 자연 상태에서 사육하고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하며 그 동물을 죽이는 대신에 똑같은 양의 쾌락을 느낄 다른 동물로 대체한다면 육식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대체가능성 논변’에 의해 일부 동물을 육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할 여지를 남겨 놓는다. 한편 리건의 동물 권리론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완전한 채식보다는 방목에 기초한 육식과 채식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이 논변들이 타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동물 해방론의 대체 가능성 논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동물 권리론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육식을 옹호해야 한다는 논변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논변들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행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동물 사육과 목축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 줄 것이다.

*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220140122).

이 논문의 초고는 2014년 10월 18일 열린 대한철학회 2014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성환 교수께 감사드린다.

** 강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종 차별주의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고,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¹⁾ 육식, 동물 실험, 동물원, 사냥, 서커스, 로테오, 모피 산업 등이 종 차별주의의 대표적인 관행들로 뽑히는데, 이 중에서 일상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행은 뭉니 뭉니 해도 육식이다. 우리는 같은 종에 속하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육과 도살을 우리와 다른 종인 동물에게는 행하며, 그런 사육과 도살은 동물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므로 종 차별주의적인 관행이다.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는 칸트의 언명처럼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육식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겠지만, 고기 외에는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채식은 건강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채식은 도덕적인 의무가 된다.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톰 리건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 권리론과 피터 싱어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 해방론이 거론된다.²⁾ 이 이론들은 육식의 관행에 대해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동물 권리론은 어느 한쪽에게 해악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클 때는 비록 그 수가 적더라도 그 해악을 피해야 한다는 악화의 원리에 의해, 사람이건 동물이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수단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체를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

-
- 1) 피터 싱어,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2012), 35면. 황경식·김성동 교수는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제3판, 연암서가, 2013)에서 종 차별주의(speciesism)를 ‘종족주의’(99면)로 번역한다. 그러나 종 차별주의와 흔히 비교되는 인종 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와 운을 맞추기 위해서는 ‘종족주의’보다 ‘종 차별주의’가 더 적절한 번역어 같다. 이하 『실천윤리학』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3판을 가리킨다.
- 2) 각각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second edition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와 싱어, 『동물 해방』을 보라.

가 됐든 반대한다. 그러나 동물 해방론은 그런 관행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여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이 산출된다면 육식이나 동물 실험도 옹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논문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두 논변인 동물 권리론과 동물 해방론에서 육식이 옹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권리 이론에 기반하는 동물 권리론과 달리 공리주의에 기반하는 동물 해방론에서는 그 자체로 보호 받아야 하는 본질적 가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동물을 자연 상태에서 사육하고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한다면 육식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그 동물을 죽이는 대신에 똑같은 양의 쾌락을 느낄 다른 동물로 대체한다면, 곧 태어나게 한다면, 쾌락의 양을 줄이는 문제도 해소된다. 동물 해방론은 이런 ‘대체가능성 논변’에 의해 일부 동물을 육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할 여지를 남겨 놓는다. 이런 동물 해방론과 달리 동물 권리론은 위에서 말했듯이 육식의 ‘전폐’를 주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건의 주장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완전한 채식보다는 방목에 기초한 육식과 채식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완전 채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작에서 죽는 들짐승의 수가 육식을 위해 죽는 동물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이는 악화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논변들이 타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동물 해방론의 대체 가능성 논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동물 권리론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육식을 옹호해야 한다는 논변은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논변들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실행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동물 사육과 목축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 줄 것이다.

2.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욕식

싱어는 윤리적 판단은 개인적이고 파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이라고 말한다.³⁾ 이 원칙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같은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둔다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익 그 자체이지 누구의 이익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백인의 이익이냐 흑인의 이익이냐 또는 남성의 이득이냐 여성의 이익이냐를 고려하면 자의적인 차별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인종 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 싱어가 이익으로 꼽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고통을 피하고,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다른 사람과 우정과 애정을 즐기며 교환하고, 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자유로이 추구하는 ... 이익.⁴⁾

모든 인간은 피부색과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이익을 선호하므로 누구의 이익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위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인간을 넘어, 동물들도 위와 같은 이익을 가질 수 있을까? 유인원이 그러한 이익들을 갖는다는 데에는 논란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짐승이동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이익을 가질지 논란이 되겠지만 의심의 이득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이익들을 가질 것 같고, 설령 의심의 이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고통을 피하려는 이익은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짐승이

3) 『실천윤리학』, 53면. 싱어는 이 원칙을 공리주의의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이라면 모두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제시한다.

4) 『실천윤리학』, 56면.

동물은 물론이고 등뼈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통의 크기나 가치가 똑같다면 사람의 고통이나 돼지의 고통이나 상어의 고통이나를 따지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어긋나는 종 차별주의이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이다.”⁵⁾라는 벤담의 오래된 진술에 담겨 있는 뜻이다.

그런데 동물을 고기로 먹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업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냥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사육을 해야 하고 도살을 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목축에서는 방목을 하므로 사육 과정에서는 가축들에게 거의 고통을 주지 않고 도축 과정에서만 고통을 주었다. 그런데 현대적인 집중적인 형태의 사육—이른바 ‘공장식 사육’—에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참한 환경에서 대량 사육을 한다. 그리고 현대식 도살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절을 시켜 도살을 해야 하지만 많은 동물을 신속하게 도살해야 하기 때문에 기절이 되지 않은 채 도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⁶⁾ 소비자 들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싼 가격에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고통을 피하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고—사육 과정에서 어미와 새끼를 떨어뜨려 놓는 일은 혼하다—자연적인 환경에서 본성을 누리며 살고 싶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더구나 인간이 육식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동물에게 빼앗은 이익에 비해 아주 사소하다. 이누이트처럼 동물성 먹거리 이외에는 구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채식 먹거리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채식은 오히려 건강이나 장수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간이 육식에

5) Jeremy Bentham, (1789), *Introduction to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8장, 4절 주석 1.

6) 사육과 도살 환경에서의 동물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최훈,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사월의책, 2012)를 보라.

서 얻는 이익은 고작해야 고기를 씹을 때 느끼는 쾌락 정도인데, 동물이 빼앗기는 아주 기본적인 이익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결국 육식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 차별적 관행이다.

3. 대체 가능성 논변과 윤리적 육식의 옹호

공리주의에서는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른 일은 없다. 따라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육식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동물로부터 고기를 얻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빼앗는 중요한 이익을 보존해 준다면 육식도 허용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을 과거 사회의 목축 방식처럼 자연 상태에서 방목을 하여 각 동물의 자연적인 본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사람에게 의해 부여되는 고통은 없게 해야 한다. 예컨대 돼지의 경우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본성, 닭의 경우 흙을 쪼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본성, 젖소의 경우 자연 상태 이상으로 젖을 짜내지 않을 본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도살이 예측되어 생기는 두려움을 주어서도 안 되고,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기절 등의 방법을 완벽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어미와 새끼의 관계에서는 설령 한쪽이 고통 없이 도살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쪽이 상실감에 비탄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자연적인 모자 관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육식도 허용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육식의 대상으로 삼는 가축들은 대부분 천수를 누리지 않고 이른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비록 고통 없는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살아 있었으면 누릴 즐거움을 없애는 것으로서 우주 전체의 쾌락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되므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공리주의자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윤리적 육

식을 허용할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가축들의 이른 죽음을 가져오는 대신에 그만큼 다른 가축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가축들이 원래 태어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면 쾌락의 총량은 여전히 감소하겠지만, 그 가축들은 앞선 가축들의 이른 죽음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우주 전체의 쾌락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식의 쾌락이 덧붙여지기까지 하니 완전 채식 때보다 쾌락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러한 육식의 합리화는 ‘대체 가능성 논변’(the replaceability argument)이라고 불린다. 한 동물의 죽음은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대체되고 죽은 동물이 살았으면 누렸을 쾌락의 양과 질은 새롭게 태어난 동물의 쾌락의 그것과 똑같으므로, 육식은 공리주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논변은 싱어의 『실천 윤리학』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지만, 그 착상은 그 이전에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의 에세이 작가인 스티븐(Leslie Stephen)은 “유대인들만 있다면 돼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⁷⁾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대체 가능성 논변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대교 신자들은 이슬람교 신자와 함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가축인 돼지는 먹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인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돼지는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다. 20세기 초 영국의 작가이며 윤리적 채식주의자인 솔트(Henry S. Salt)는 이런 식의 생각을 ‘식료품실의 논리’(the logic of the larder)라고 불렀다. 그는 “식료품실을 고기로 가득 채워 놓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⁸⁾라고 풍자적으로 말했는데, 고기를 자꾸 먹어야 동물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체 가능성 논변은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식을 윤리적

7) 『실천윤리학』, 194면에서 재인용.

8) Henry S. Salt(1914), *The Humanities of Diet*. 위 인용구가 있는 발췌문을 <http://www.animal-rights-library.com/texts-c/salt02.htm>에서 볼 수 있음.

인 의무로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⁹⁾ 육식을 해야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고 우주 전체의 쾌락의 총량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식의 쾌락이 덧붙여지니 쾌락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대체 가능성 논변은 이른바 ‘윤리적 육식’을 승인해 준다. 동물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고통 없이 도살된 고기를 먹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르치 않으며, 공리주의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일부 철학자들은 대체 가능성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윤리적 육식을 주장함으로써 이 논변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싱어의 스승인 리처드 헤어는 “나는 왜 절반만 채식주의자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감각 있는 존재의 ‘삶의 질을 고려한 여명’(quality-adjusted life year)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고기 먹는 것을 그만 두면 그 양을 늘릴 수 없다고 믿는다.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면 고기 시장이 사라질 것이고, 동물은 고기용으로 더 이상 길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그는 영국의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결국에는 먹힐 운명의 동물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한편 보수주의 철학자 로저 스크러튼(Roger Scruton)도 “희생되는 동물은 그 희생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그들을 먹으려는 의도 덕분에 목숨을 유지한다.”라고 말한다.¹¹⁾ 그 외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폴런의 『잡식동물의 딜레마』도 윤리적 육식을 주장하는 대표

9) Tatjana Višak은 *Killing Happy Animals: Explorations in Utilitarian Ethics* (Palgrave Macmillan, 2013), 130면에서 ‘식료품실의 논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10) R. M. Hare(1993), “Why I am only a Demi-vegetarian”, *Essays on Bio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219-236면에서 227-8면.

11) Roger Scruton, “Eating our Friends”. *Right Reason* (May 26, 2006). <http://catholiceducation.org/articles/environment/en0011.htm>에 재수록.

적인 대중서이다.¹²⁾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 대체 가능성 논변이 성립하며 윤리적 육식은 허용된다.

- (ㄱ) 동물은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고통 없이 도살된다.
- (ㄴ) 동물에게 이른 죽음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 이른 죽음이 없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동물들을 태어나게 한다.

공리주의는 세상의 쾌락의 양을 증대시킬 의무가 있다. (ㄱ)에 의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동물에게 새롭게 주는 고통은 없다. 그리고 동물의 이른 죽음에 의해 세상의 쾌락의 양이 감소하지만 (ㄴ)에 의해 그 쾌락은 대체된다. 여기에 인간의 육식의 쾌락이 덧붙여진다. 따라서 대체 가능성 논변은 공리주의에서 동물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육식을 옹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4. 사전 존재적 견해와 전체적 견해

대체 가능성 논변은 그러나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대의 동물 사육과 도축 방식이 밀집화·대량화·신속화된 것은 다량의 고기를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대체 가능성 논변의 위 (ㄱ)과 (ㄴ) 조건을 만족하며 생산하는 고기는 공장식 농장 이전의 가족농 형태와 비슷한 환경에서나 가능한데, 그것은 소량에 고가로 고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싼 고기 맛에 길들여진 소비자에게 윤리적인 소비를 요구하기는 힘들다. 윤리적인 육식주의자는 윤리적인 사육을 하는 농장에서 공급된 고기를 구입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직접 사육을 하면 되겠지만, 고

12) 마이클 폴란, 『잡식동물의 딜레마』 (다른세상, 2008).

통 없이 도살을 하는 도축장을 찾기 어렵다.¹³⁾ 따라서 대체 가능성 논변은 법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사육과 도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공리주의에서 대체 가능성 논변은 실천적인 어려움보다 이론적인 옹호 가능성이 더 문제가 된다.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 쾌락을 빼앗기는 동물은 현재 존재하는 동물임에 반해 그 동물의 쾌락을 대체하는 동물은 가상의 동물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공리주의에서 앞으로 존재할 가상의 쾌락을 계산에서 고려할 수 있는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재하는 쾌락이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잠재적인 쾌락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공리주의는 인정될 수 있는가? 공리주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전체적 견해’(total view)는 현재 존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능한 대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사전 존재적 견해’(prior existence view)는 현재 존재하는 대상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싱어에 따르면 전체적 견해와 사전 존재적 견해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전체적 견해: 즐거운 삶을 사는 존재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세상의 쾌락의 양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며, 즐거운 삶을 사는 존재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세상의 쾌락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주장.¹⁴⁾

사전 존재적 견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상관없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자들만을 고려하는 것.¹⁵⁾

우리는 지금 동물의 존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적 견해와 사전

1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특별히 허가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다.

14) 『실천윤리학』, 165면.

15) 『실천윤리학』, 166면.

존재적 견해는 인구 윤리에서도 중요한 논란거리이다. 곧 전체적 견해에서는 미래에 쾌락을 누릴 것 같은 아기를 낳을 도덕적 의무가 있는 반면에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그것은 의무가 아니다. 사전 존재적 견해라고 해서 현재 있는 존재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특정 행위와 상관없이 있게 될 존재도 고려한다. 다만 우리가 숙고하는 행위에 따라 생기게 될 존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대체 가능성 논변은 전체적 견해에서는 인정되지만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논변에서 문제가 되는 존재는 인간에 의한 도살이라는 특정 행위에 의해 태어나게 될 가상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 가능성 논변이 성공하여 공리주의에서 육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가 아닌 전체적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대체 가능성 논변은 싱어의 『실천 윤리학』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된다. 『실천 윤리학』은 초판(1979), 2판(1993), 3판(2011)을 거듭하면서 내용이 확장되지만¹⁶⁾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 것은 이 대체 가능성 논변 정도밖에 없다. 그는 우선 초판에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체 가능성 논변이 간단한 철학적 실수에 근거하고 있다는 솔트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솔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류는 존재와 비존재의 비교를 시도하는 혼동된 사고에 기인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죽기보다는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논변의 기초가 되는 존재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가 비존재라는 심연과 같은 것으로부터 논변하기 시작하자마자 무의미한 말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우리는 슬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선이니 악이니 행복하다느니 불행

16) 한국어 번역본은 초판(1991), 2판(1997), 3판(2013)에 나왔다. 이 논문에서 인용은 번역본에 따른다.

하다느니 하고 술어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⁷⁾

이를 받아들인 싱어는 『실천 윤리학』의 초판보다 먼저 나온 『동물 해방』 초판(1975)에서 이미 전체적 견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존재의 호의를 누구에게 주는가? 태어나지 않은, 수정되지 않은, 비존재의 동물에게?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연옥에서 누군가가 존재하게 해 줄 것을 기다리는 비존재적 존재라는 것은 없다. 어떤 존재가 존재하면, 우리는 그 존재가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지 않게 할 의무가 있지만, 비존재적 존재에게는 의무가 없다. ‘비존재적 존재’라는 말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존재적 존재에게 이익도 해로움도 줄 수 없다.¹⁸⁾

그러나 이 문제점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숙고하여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때 미래는 비존재이기 때문이다. 환경 윤리는 항상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존재를 고려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여자는 금연을 하거나 감기약을 먹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조심하는데 역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아기의 행복을 위한 행동이다. 만약 비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이다.¹⁹⁾ 그리고 사전 존재적 견해 역시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특정 행위와 상관없이 있게 될 존재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존재 역시 미래의 존재이다. 따라서 사전 존재적 견해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반대할 이유도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17) 『실천윤리학』, 198면에서 재인용.

18)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p. 241.

19) Tatjana Višak은 ‘사물적 더 나옴(de re betterness)’과 ‘언어적 더 나옴(de dicto betterness)’을 구분하여 후자의 의미에서 더 나옴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Killing Happy Animals*, 99면.

대체 가능성 논변을 지지하는 전체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인간의 대체 가능성마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을 죽이더라도, 그 인간이 죽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인간을 태어나게 하여 전체 쾌락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그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받아들임으로써 “고통보다 쾌락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또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르다고 주장할 것이다.”²⁰⁾

그런데 『동물 해방』의 2판(1990)과 『실천 윤리학』의 2판에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포기하고 전체적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변화의 계기는 파핏(Derek Parfit)의 두 여인 사고 실험 때문이다.²¹⁾ 모두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는 두 여인을 비교해 보자.

첫 번째 여인은 이미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나쁜 소식은 그녀의 태아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거나 전혀 살 가치가 없도록 만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미래의 삶의 질을 상당히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결함이 쉽게 치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은 전혀 부작용이 없을 알약을 하나 먹는 것뿐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나중에 아무런 결함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소식이다.

두 번째 여인은 임신을 하기 위하여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 두려고 할 때, 의사를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들었다. 나쁜 소식은 그녀의 건강상태 때문에 3개월 내에 아기

20)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초판, 99면.

21) 이 사고 실험은 Derek Parfit, “Rights, Interests, and Possible People”, In Samuel Gorovitz et al., eds., *Moral Problems in Medicin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369-375면에 실려 있다. 아래 인용은 영어, 『실천윤리학』, 198-9면의 것이다.

를 가지면 그 아이가 중요한 결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결함은 첫 번째 여성의 아이가 그 약을 먹지 않을 때 가질 결함과 같은 결함일 것이며, 이 결함은 치료할 수 없다는 소식이다. 좋은 소식은 그녀의 건강상태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다음 임신한다면, 그녀의 아이는 그러한 결함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여인도 약을 먹어야 하며 두 번째 여인도 기다렸다가 임신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첫 번째 여인이 약을 먹지 않고 두 번째 여인이 기다리지 않고 임신하여, 결과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두 여인 모두 나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싱어는 두 여인이 정말로 똑같이 나쁜 일을 했는지 살펴본다. 첫 번째 여인의 아이나 두 번째 여인의 아이나 모두 자신의 어머니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자신이 장애가 생긴 것을 항의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만약 내가 3개월을 기다려 임신했다면,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다른 정자와 다른 난자로부터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너의 삶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지 않고서라면 너는 태어날 기회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²²⁾

곧 이 어머니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이에게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전제하고 있다.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첫 번째 여인만을 비난할 수 있고 두 번째 여인은 비난할 수 없다. 두 번째 여인이

22) 『실천윤리학』, 200-1면. Derek Parfit은 다른 시기에 임신했으면 다른 아이가 생겼을 것이라는 이 문제를 ‘비동일성 문제(non-identity problem)’라고 부른다.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358면. 이 원리에 대한 논의는 김환승, “과핏의 사적인 원리와 비사적인 원리: 과핏이 잠자는 미녀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철학적 분석』 19 (2009), 119-37면도 보라.

낳은 아이는 적절한 삶을 살 것이므로 그 아이를 낳은 것은 잘못이 아니고, 두 번째 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낳을 수 있었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덜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것에 잘못이 있”²³⁾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그런 비교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은 두 번째 여인도 첫 번째 여인만큼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싱어가 전체적 견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사전 존재적 견해로는 두 번째 여인의 잘못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존재하게 될 존재를 거론해서 쾌락의 최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거부하고 전체적 견해를 옹호해야 하는 것이다. 싱어는 이런 선택에 의해 대체 가능성 논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싱어는 다른 논문에서 사전 존재적 견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비대칭성(asymmetry)에 의해 설명한다. “가능한 아이가 경험할 쾌락이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이유가 아니라면, 가능한 아이가 경험할 고통은 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가?”²⁴⁾ 행복하게 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부부와 고통스럽게 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부부를 생각해 보자. 위 사고 실험에서 두 번째 부인은 결함이 있을 아이와 결함이 없을 아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결함이 없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일이지만, 행복하게 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부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낳지 않는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꼭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식을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적 견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전체적 견해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이 살 가치가 없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23) 피터 싱어, 『실천윤리학』(개정판,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 157면.

24) Peter Singer, “Killing Humans and Killing Animals”, *Inquiry* 22 (1979), 145-156면 중 148면.

힘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런 의무는 한 가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니, 전체적 견해에서는 지구는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기 직전까지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식으로 얼른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결론은 파팻은 ‘당혹스러운 결론’(the repugnant conclusion)이라고 불렀다.²⁵⁾

사전 존재적 견해는 당혹스러운 결론은 피해 갈 수 있지만, 거꾸로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은 아이를 낳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결국에는 우주 전체는 쾌락보다 고통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공리주의의 원리에 위배된다. 파팻은 이 경우를 ‘비참한 아이’(the wretched child)의 사례라고 불렀다. 결국 전체적 견해는 당혹스러운 결론을, 사전 존재적 견해는 비참한 아이 사례를 설명해야 할 부담을 진다. 그런데 싱어가 두 여인의 사고 실험을 거론하거나 “가능한 아이가 경험할 쾌락이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이유가 아니라면, 가능한 아이가 경험할 고통은 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가?”라고 사전 존재적 견해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 사전 존재적 견해의 부담에만 주목하고 전체적 견해의 부담은 무시하는 것 같다. 나는 비참한 아이의 사례와 달리 당혹스러운 결론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전체적 견해라고 해서 세상의 쾌락을 늘리는 방법으로, 쾌락을 가질 것 같은 존재를 늘리는 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존재의 쾌락을 늘리는 길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 견해를 지지하면서 우주 전체의 쾌락을 현명하게 증대시킬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쾌락을 가질 것 같은 존재를 적당히 늘렸을 때 오히려 그렇게 태어난 존재와 이미 있는 존재가 최대한의 쾌락을 가질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물론 이때 어느 정도의 ‘적당히’ 늘렸을 때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는 경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

25) Derek Parfit, *Reasons and Persons*, 388면. 김한승의 위 논문도 보라.

적 견해라고 해서 인구를 무한대로 늘리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당혹스러운 결론과 비참한 아이의 사례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로 미루겠다.²⁶⁾

5. 선호 공리주의와 쾌락 공리주의

『실천윤리학』은 그 주장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많이 담고 있지만 상당히 분명하고 일관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체 가능성 논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꽤 복잡한 입장의 변화가 관찰된다. 그 입장의 변화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싱어는 『실천윤리학』의 초판에서 대체 가능성 논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2판에서부터 그것을 받아들인다. 곧 초판에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옹호하다가 2판에서부터 전체적 견해를 옹호한다. 사실은 초판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봐야 한다.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해서는 전체적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사전 존재적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2판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26) 당혹스러운 결론과 비참한 아이 사례는 인구 윤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Melinda A. Roberts and David T. Wasserman (eds), *Harming Future Persons: Ethics, Genetics and the Nonidentity Problem* (Dordrecht: Springer, 2009), Jesper Ryberg and Torbjörn Tännsjö (eds.), *The Repugnant Conclusion: Essays on Population Ethic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Tim Mulgan, *Future People: A Moderate Consequentialist Account of our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R. I. Sikora and, B. Barry (eds.),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White Horse Press, 1978)를 보라. 한편 Tatjana Višak은 *Killing Happy Animals*, 118-126면에서 부부의 나쁜 성격에 의해 비참한 아이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리주의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

... 예전에 주장되었던 형태의 결과론으로부터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 둘째로 초판의 제5장에서 ‘전체적’ 공리주의와 ‘사전 존재적’ 공리주의를, 전자를 자의식적이지 못한 의식적 존재에, 그리고 후자를 자의식적인 의식적 존재에 적용함으로써 결합시키고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간 잠정적으로 제안했었는데, 이제 나는 이를 포기했다. 나는 선호 공리주의가 이들 두 범주를 충분히 날카롭게 구분하여 모든 의식적 존재에 한 종류의 공리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²⁷⁾

싱어가 초판에서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인간의 대체 가능성마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전체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지 이유라고 위에서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인간²⁸⁾에는 전체적 견해 대신에 사전 존재적 견해가 적용된다는 방식으로 일관성의 뒷에서 빠져 나가는 방식을 썼다. 그러나 2판에서부터는 대체 가능성 논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대체 가능성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실제로 두 번째 여인의 선택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아이가 대체 가능한데도 그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성인도 역시 대체 가능할 것이고, 대체 가능하다면 성인을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용납되는 것 아니겠는가?

싱어는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공리주의 중에서도 쾌락과 고통 그 자체보다 선호(preference)의 만족에 관심을 갖는 ‘선호 공리주의’를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존재를 죽이는 것을 구분한 다음, 후자와 달리 전자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²⁹⁾ 자의식적인 존재는 미래에 대한 욕구, 곧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은 다른 존재를 태어나게 한다고 해서 보완될

27) 『실천윤리학』(개정판), 9면.

28) 정확하게는 ‘자의식적인 존재’이다.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온다.

29) 『실천윤리학』(개정판), 159-60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자의식적이지 못한 존재는 단순히 쾌락이나 고통과 같은 경험을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바뀌어도 거기에 담겨 있는 행복의 양이 변함이 없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컨대 물고기가 자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의식을 잃기 전의 물고기는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의식에서 깨어난 물고기도 전에 자신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 두 물고기는 레이첼스(James Rachels)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비록 생물학적으로는(biological) 같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기적으로는(biographical) 같은 물고기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³⁰⁾, 물고기를 죽인 다음 비슷한 물고기로 대체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의식적인 존재는, 싱어에 따르면 단순한 ‘호모 사피엔스’와 구분하여 ‘인격체’(person)라고 불린다.³¹⁾ 이제 인격체는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 면제된다. 어느 정도의 동물까지 인격체로 분류할지는 논란거리가 된다. 싱어에 따르면 갓난아이와 식물인간을 제외한 인간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짐승이동물도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대체 가능성 논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소, 양, 돼지를 먹는 윤리적인 육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동물 중 닭과 물고기가 인격체인지는 논란이 되는데, 싱어는 닭이 자기 통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가까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일부 물고기가 학습 능력이 있다는 이유에서 인격체에서 제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격체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때는 의심의 이득을 주어야 하므로, 인간이 아닌 많은 동물들에 대해 대체 가능성 논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싱어의 결론이다.³²⁾ 바너(Gary E. Varner)는 인격체와 인격체 아닌 존재의 구분을 좀

30) 제임스 레이첼스,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다윈주의의 도덕적 함의』(김성한 옮김, 나남, 2009), 361면 이하.

31) 『실천윤리학』, 143면.

32) 『실천윤리학』, 189-90면.

더 세분화하여 ‘인격체’와 ‘유사 인격체’(near-person)와 ‘단순히 감각만 있는 존재’로 구분한다. 인격체는 전기적인 자아의 느낌(biographical sense of self)이 있는 존재이고, 유사 인격체는 그것은 없지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강건하고 의식적인 느낌이 있는 존재이다.³³⁾ 바너는 유인원, 돌고래, 코끼리와 같은 동물은 유사 인격체에 속하고, 유사 인격체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성 논변이 제한된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체를 어느 범위까지 잡을지는 경험적인 문제인데, 그 결과에 따라 대체 가능성 논변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선호 공리주의에 의해 인격체를 대체 가능성 논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는 그리 순탄하지 않다. 하트는 상어의 의도와 달리 자의식적인 존재도 비자의식적인 존재와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선호 공리주의도 공리주의의 하나이므로, 선호가 전체적으로 극대화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선호들이, 심지어 살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다른 존재의 선호에 의해서 능가될 수도 있다면, 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선호들에 의해서는 대체될 수 없겠는가? 선호가 능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호 공리주의에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단순한 그릇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라고 말한다.³⁴⁾ 이때 그릇이란 앞에서 자의식적이지 못한 존재를 단순히 쾌락과 고통과 같은 경험을 담은 그릇이라고 비유한 것을 가리킨다. 쾌락과 마찬가지로 선호의 경우에도 새로운 선호가 지금 존재하는 선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3) Gary E. Varner, *Personhood, Ethics, and Animal Cognition: Situating Animals in Hare's Two Level Utilita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7면과 21면.

34) H. L. A. Hart, “Death and Utility”,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May 15, 1980), 27-32면에서 30면. 『실천윤리학』, 207면에 이 문장의 일부가 번역되어 있는데 “대체될 수 없겠는가?”가 “능가될 수 없겠는가?”로 번역되어 있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트의 비판이 타당하다면 자의식적인 인격체마저도 대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싱어는 선호가 비슷한 선호에 의해서라도 대체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도덕 장부(moral ledger)’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선호를 만드는 것은 도덕 장부에 차변을 만드는 것이고 그 선호를 만족하는 것은 차변을 삭제하는 것에 비유한다.³⁵⁾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빗을 지고 그 빗을 갚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미래에 대한 욕구(선호)가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설명된다. 많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것은 결코 삭제되지 않는 차변을 많이 남겨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의 두 여인 사고 실험에서 두 여인 모두 잘못했다는 것도 설명 가능하다. 약을 먹지 않고 낳은 아이나 나중에 낳지 않고 지금 낳은 아이는 약을 먹은 후 낳은 아이나 나중에 낳을 아이보다 도덕 장부에서 적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하트의 비판 때문에 나왔으므로 그 비판도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트가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선호는 다른 사람의 장부에 적히는 선호이다. 그 선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충족되지 못한 선호는 원래의 장부에 여전히 적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트의 주장과 달리 선호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도덕 장부 모델에 근거한 선호 공리주의에는 심각한 반론이 제기됨을 싱어 스스로 인정한다.

만약 각각의 선호를 만드는 것이 욕구가 충족될 때 삭제되는 차변이라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행복하고 그녀의 거의 모든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아이를 낳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누구나 만족되지 않는 욕구를 약간은 가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삶도 장부에 조그만 차변은 남길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³⁶⁾

35) 『실천윤리학』, 189-90면.

도덕 장부 모델은 욕구와 그것의 충족을 차변 기입과 그것의 삭제로 설명하므로, 최선의 상태는 차변이 모두 삭제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욕구가 모두 충족되는 것이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고통이므로, 도덕 장부 모델은 기껏해야 고통이 없는 상태만이 최선일 뿐인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찾기 힘들다. 누구의 삶이든 만족되지 않는 충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삶을 마감할 것이므로, 이 모델에서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귀결은 인생을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것인데, 염세주의는 세상을 바로 보는 한 가지 관점이므로 염세주의적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진짜 문제는 항상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고 누구나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사업이 언제나 적자가 될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본전치기밖에 안 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출생을 혐오하는 결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직관적으로 부담이 많다. 싱어는 『실천윤리학』의 3판에서 출생을 혐오하는 결론에서는 자기를 아는 수십억의 존재가 있는 ‘인간 우주(Peopled Universe)’가 어떠한 감각 있는 생명도 결코 없는 ‘비감각 우주(Nonsentient Universe)’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³⁶⁾ 인간 우주는 수십억의 존재들이 풍요롭고 완전한 삶을 살고 고통을 방지하거나 덜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모든 욕구들을 충족할 수 없는 데 반해, 비감각 우주에서는 욕구가 없으므로 충족되지 않는 욕구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우주는 마이너

36) 『실천윤리학』, 209-10면. 이런 종류의 비판으로는 Michael Lockwood, “Singer on Killing and the Preference for Life,” *Inquiry* 22(1979), 157-70면이 있다. 그리고 출산을 반대하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책으로는 David Benatar,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이 있다.

37) 이 구분은 『실천윤리학』, 212면에 나온다.

스의 충족이지만 비감각 우주는 충족값이 0이다. 이런 반직관적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싱어는 두 종류의 가치들을 구분하고자 시도한다.³⁸⁾ 그 하나는 ‘선호 의존적인 가치’로서 선호를 가진 존재자의 존재에 의존하며 그러한 특정한 존재자들의 선호들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인간 우주가 비감각 우주보다 낫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앞단락에서 논의한 것처럼 선호 의존적인 가치로는 그 직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선호 의존적인 가치가 아닌 ‘선호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쾌락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쾌락으로서, 인간 우주에서 고통을 감하고 남는 쾌락을 말한다. 선호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는 쾌락 공리주의에서는 인간 우주가 우리 세상에서 고통을 감하고 남는 쾌락이 있다면 쾌락도 고통도 없는 무감각 우주보다 낫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선호 공리주의자였던 싱어가 갑자기 쾌락 공리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선호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많은 다양한 가능한 견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치에 대한 ‘다원론적 견해’를 취한다.³⁹⁾ 쾌락과 행복뿐만 아니라 사랑, 우주, 지식, 미의 평가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논의가 되었는데, 논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싱어가 도덕장부 모델을 도입한 계기는 대체 가능성 논변이 자의식이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음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덕장부 모델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비직관적인 결론을 받아들여야 했다. 싱어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호 의존적인 가치 외에 선호로부터 독립적인 가치까지 받아들인다. 이는 선호 공리주의가 아닌 쾌락 공

38) 『실천윤리학』, 213-4면.

39) 『실천윤리학』, 214면.

리주의를 받아들인다는 뜻인데—또는 둘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대체 가능성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에게 선호와 독립적인 쾌락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도덕 장부 모델을 도입하게 한 것은 선호마저도 다른 존재의 선호에 의해서 능가되면 대체될 수 있다는 하트의 비판이었는데, 선호와 독립적인 쾌락이야말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의식적인 인간 역시 대체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싱어는 하트의 비판을 피해 돌고 돌아 쾌락 공리주의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애초의 하트의 비판에 다시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싱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다. 자의식적인 인간이 대체 가능함을 받아들이든가 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뜻 선택할 수 없다.

6. 동물의 권리와 육식

지금까지 살펴본 공리주의에서는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른 것은 없으므로 그 이론 내에서 육식을 정당화할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인다. 반면에 동물에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물 권리론에서는 육식은 전혀 허용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가능성 논변이 공리주의 내에서 나온 것과 달리 실제로 동물 권리론 내에서 육식을 허용하는 주장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동물 권리론자는 아닌 동물 과학자 데이비스(Steven L. Davis)는 리건의 동물 권리론의 핵심 주장인 최소 침해의 원리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채식보다는 식물성 먹거리와 되새김질 동물의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⁰⁾

40) Steven L. Davis, “The Least Harm Principle May Require That Humans Consume A Diet Containing Large Herbivores, Not A Vegan Diet”,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16(2003), 387-394면. Andy Lamey, “Food Fight! Davis versus Regan on the Ethics of Eating Beef”, *Journal of*

리건에서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은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개체들의 본래적 가치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는 ‘최소 침해의 원리(the least harm principle)’를 따라야 한다.

… 무고한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무고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할 때 …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보다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41)

고기를 생산하는 농업은 수많은 동물의 삶을 침해하므로 위 원리에 어긋나므로, 우리는 채식을 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리건의 결론이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채식은 동물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하는 식량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죽는 동물들의 숫자가 고기를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채식을 위해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트랙터나 콤팩트 등을 이용해서 쟁기질, 씨레질, 수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썰, 야생 칠면조, 토끼, 들쥐 등이 희생당한다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농촌 출신으로 농사에서 희생되는 들짐승들을 많이 봤다고 말하지만, 동물 과학자답게 그런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

Social Philosophy 38 (2007), 331-48면의 주 4에 따르면, Davis의 논문은 *Time*, *The New York Times Magazine*, *ABC News*와 같은 대중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육식은 본능의 문제이고 그것을 옹호하는 논리가 별로 없다 보니 채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론이 나오면 언론과 대중은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우리말로 번역된 리어 키스, 『채식의 배신』(김희정 옮김, 부키, 2013)에 보인 관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육식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그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 씻겨 준다고 보는 것 같다.

41)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305면. Regan에서 채식을 옹호하는 원리는 이 원리보다는 ‘악화의 원리’가 더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Davis가 최소 침해의 원리로 논의를 진행하므로 여기서도 그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 채식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을까? 미국에서 매년 수확되는 경작지는 1억2천만 헥타르이다. 이 땅이 모두 채식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리고 매년 헥타르당 1천5백만 마리의 동물이 죽는다면, 1억2천만x1천5백만=18억 마리의 동물이 미국에서 매년 채식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죽는다.⁴²⁾

데이비스는 동물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대안으로 채식과 목축을 결합한 농업을 제안한다. 목초(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트랙터나 콤파인이 거의 필요 없으므로 희생되는 동물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데이비스는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동물의 마릿수도 계산한다. 미국 경작지의 절반은 인간이 섭취하기 위한 작물을 생산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목초 생산을 위해 쓰인다고 할 때, 희생되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6\text{천만 헥타르(작물 생산)} \times 15\text{마리/헥타르} &= 9\text{천만 마리} \\ 6\text{천만 헥타르(목초 생산)} \times 7.5\text{마리/헥타르} &= 4\text{천5백만 마리} \\ \text{총계} &= 1\text{억3천5백만 마리}^{43)} \end{aligned}$$

1억3천5백만 마리는 채식 농업에서 희생되는 18억 마리보다 훨씬 적은 마릿수이다. 따라서 데이비스는 최소 침해의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은 식물성 먹거리와 되새김질 동물(소, 양 등)을 먹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희생되는 되새김질 동물도 계산해야 한다. 미국에서 매년 희생되는 동물은 8억4천만 마리인데 그 중 8억 마리 정도는 가금류이고 3천7백만 마리가 되새김질 동물이며 돼지나 기타 동물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가금류 대신에 더 먹게 되는 되새김질 동물의 수는 3천7백만 마리의 갑절 정도가 된다고 계산할 때 매년 희생되는 동물의 총 마릿수는 3천7백만 마리의 세 곱인 1억4240만 마리가 될 것이고, 이는 채

42) Davis, "The Least Harm Principle ...", 390면.

43) Davis, "The Least Harm Principle ...", 390면.

식 농업에서 희생되는 동물의 마릿수보다 여전히 적다는 것이 데이비스의 주장이다.

데이비스의 계산은 미국에서 매년 수확되는 경작지가 1억2천만 헥타르이고 이 땅이 모두 채식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정부터가 의심스럽다. 미국 경작지의 상당 부분은 콩과 옥수수가 재배되고 그것들은 채식 먹거리용이 아니라 동물의 먹이용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순전히 채식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경작지는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 데이비스 측에서는, 경작지가 줄어들다고 해도 거기서 죽는 동물들은 여전히 있고 그 마릿수는 자신이 제안한 농법에서 희생되는 동물들의 마릿수보다 여전히 많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말한 꿩, 야생 칠면조, 토끼, 들쥐 등의 들짐승은 인간의 주거지와 가까운 농장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육식의 증가로 동물 사육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동물의 먹이용으로 경작할 작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경작지는 점점 들짐승의 서식지와 가까운 곳으로 늘어나서 그런 들짐승의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경작지가 점점 숲 가운데로 들어감에 따라 서식지가 위협 받게 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순전한 채식에 따라 경작지가 줄어들면 희생되는 들짐승은 그만큼 비례해서 줄어들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고 계산해야 한다.

데이비스의 논문에 논평을 한 매트니(Gaverick Matheny)는 데이비스의 계산법에서 또 다른 오류를 지적한다. 데이비스는 자신이 제안하는 농법의 장점을 계산하기 위해 미국 경작지를 작물과 목초 생산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땅에서 가축을 기를 때보다 곡식을 기를 때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상식이다. 매트니에 따르면 천 킬로그램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콩이나 옥수수가 1헥타르가 필요하다면, 쪼갠 콩을 기르는 목초를 위해서는 2.6헥타르, 고기소를 기르는 목초를 위해서는 10헥타르

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인 한 명에게 1년 동안 필요한 20킬로그램의 단백질을 위해서 희생되는 들짐승은 유제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vegan)의 경우에는 0.3마리인 데 비해, 유제품을 먹는 채식주의의 경우에는 0.39마리, 데이비스 식의 식생활에서는 1.5마리이다.⁴⁴⁾ 그러므로 데이비스의 계산을 수정하면 채식주의가 동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데이비스는 채식주의 농업에서 희생되는 들짐승이 육식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쟁기질이나 씨레질에 의해 희생되는 들짐승도 트랙터나 콤바인의 날에 의해 죽는 것보다 농작물 수확에 의해 올빼미와 같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데이비스가 통계 근거로 삼는 연구 논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⁴⁵⁾ 동물이 포식자에게 희생되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윤리적인 반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포식자에 의한 희생은 농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농부의 수확에 의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데이비스는 의도적인 죽임이든 비의도적인 죽임이든 동물에게 가해지는 희생은 똑같으므로 그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죽음은 죽음이다.”라고.⁴⁶⁾ 그러나 공리주의에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만, 데이비스가 리건의 동물 권리론을 비판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음을 기억하면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데이비스의 논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희생되는 동물의 마릿수만 계산하지 사육되는 동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44) Gaverick Matheny, “Least Harm: A Defense of Vegetarianism from Steven Davis’s Omnivorous Proposal”,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16 (2003), 505-511면에서 507면.

45) T. E. Tew, and D. W. Macdonald, “The Effects of Harvest on Arable Wood Mice *Apodemus sylvaticus*”, *Biological Conservation* 65 (1993), 279-283면에서 282면. 이들은 33마리의 쥐에게 무선 장치를 달아 추적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그 중 9퍼센트만이 수확 과정에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52퍼센트는 사라졌는데, 그 절반 정도(27퍼센트)는 포식자에 의해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46) Davis, “The Least Harm Principle ...”, 392면.

는 사실이다. 그가 추천하는 채식과 목축을 결합한 농업이 리건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확 과정에서 희생되는 들짐승뿐만 아니라 되새김질 동물이 사육되면서 받는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⁴⁷⁾ 들짐승은 설령 트랙터와 콤바인의 날이나 포식 동물에 의해 희생되더라도 희생되기 전까지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희생에서 겪는 고통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제안하는 되새김질 동물이 집약된 형태의 공장식 농장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채식을 위한 농업에서 희생되는 동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공장식 농장에서 고통 받는 동물이 침해 받는 권리가 훨씬 더 많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고통을 받는 동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는 동물보다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들짐승이 겪는 고통은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육 동물의 고통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윤리적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비스의 논변이 어느 정도 타당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은 채 자연 상태에서 방목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얻는 고기의 양은 아주 적을 것이다. 물론 땅이 곡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목에 의한 육식이 허용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많지 않고 있더라도 그런 육식은 동물 권리론에서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47) George Schedler는 “Does Ethical Meat Eating Maximize Utility”, *Social Theory and Practice* 31 (2005), 499-511면에서 Davis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리적인 육식을 위해서는 목축에서 나온 고기와 가정에서 기른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chedler도 경작 과정에서 희생되는 동물의 마릿수만 고려하지, 목축에서 겪는 동물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7. 맺음말

지금까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론인 동물 해방론과 동물 권리론을 유지하면서도 육식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동물 해방론에서는 대체 가능성 논변이 그런 옹호 시도였고, 데이비스는 동물 권리론에 대해 육식을 하는 것이 그 이론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 나는 대체 가능성 논변의 타당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대체 가능성 논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전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동물 해방론에서 육식을 옹호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데이비스의 논변에는 잘못된 가정이 상당히 많아 실패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결국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육식을 옹호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대체 가능성 논변과 데이비스의 논변이 성공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의 육식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두 논변 모두 동물을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 방목해야 하며 고통 없이 도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공급되는 고기는 아주 소량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과거 사회처럼 특별한 날에나 고기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승 (2009), “파퓰의 사적인 원리와 비사적인 원리: 파퓰이 잠자는 미녀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철학적 분석』 19, 119-137면.
- 리어 키스 (2013), 『채식의 배신』, 김희정 옮김, 부키.
- 마이클 폴란 (2008), 『잡식동물의 딜레마』, 조윤정 옮김, 다른세상.
- 제임스 레이첼스 (2009), 『동물에서 유래된 인간: 다윈주의의 도덕적 함의』, 김성한 옮김, 나남.
- 피터 싱어 (2012), 『동물 해방』,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 피터 싱어 (1997), 『실천윤리학』(개정판), 황경식·김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 피터 싱어 (2013), 『실천윤리학』(제3판), 황경식·김성동 옮김, 연암서가.
- 최 훈 (2012),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사월의책.
- Benatar, David (2006), *Better Never to Have Been: The Harm of Coming Into Exist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ntham, Jeremy (1789), *Introduction to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 Davis, Steven L. (2003), “The Least Harm Principle May Require That Humans Consume A Diet Containing Large Herbivores, Not A Vegan Diet”,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16, 387-394면.
- Hare, R. M. (1993), “Why I am only a Demi-vegetarian”, *Essays on Bioethics*, Oxford: Clarendon Press.
- Hart, H. L. A. (1980), “Death and Utility”,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May 15, 1980, 27-32면.
- Lamey, Andy (2007), “Food Fight! Davis versus Regan on the Ethics of Eating Beef”,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8, 331-48면
- Lockwood, Michael (1979), “Singer on Killing and the Preference for

- Life,” *Inquiry* 22, 157-70면.
- Matheny, Gaverick (2003), “Least Harm: A Defense of Vegetarianism from Steven Davis’s Omnivorous Proposal”,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16, 505-511면.
- Mulgan, Tim (2009), *Future People: A Moderate Consequentialist Account of our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Parfit, Derek (1983), “Rights, Interests, and Possible People”, In Samuel Gorovitz et al., eds., *Moral Problems in Medicin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arfit, Derek (1984),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 Regan, Tom (2004), *The Case for Animal Rights*, second edition,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erts, Melinda A. and David T. Wasserman (eds) (2009), *Harming Future Persons: Ethics, Genetics and the Nonidentity Problem*, Dordrecht: Springer.
- Ryberg, Jesper and Torbjörn Tännsjö (eds.) (2004), *The Repugnant Conclusion: Essays on Population Ethic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alt, Henry S. (1914), *The Humanities of Diet: Some Reasonings and Rhymings*, Vegetarian Society.
(<http://www.animal-rights-library.com/texts-c/salt02.htm>)
- Singer, Peter (1975),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New York: New York Review/Random House.
- Singer, Peter (1979), *Practical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ger, Peter (1979), “Killing Humans and Killing Animals”, *Inquiry* 22, 145-156면

- Višak, Tatjana (2013), *Killing Happy Animals: Explorations in Utilitarian Ethics*,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Scruton, Roger (2006), "Eating our Friends". *Right Reason*, May 26, 2006.
<http://catholiceducation.org/articles/environment/en0011.htm>.
- Sikora, R. I. and, B. Barry (eds.) (1978),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White Horse Press.
- Tew, T. E. and D. W. Macdonald (1993), "The Effects of Harvest on Arable Wood Mice *Apodemus sylvaticus*", *Biological Conservation* 65, 279-283면.
- Schedler, George (2005), "Does Ethical Meat Eating Maximize Utility", *Social Theory and Practice* 31, 499-511면.
- Varner, Gary E. (2012), *Personhood, Ethics, and Animal Cognition: Situating Animals in Hare's Two Level Utilitaria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n We Advocate Eating Meat While Assigning the Moral Status to Animals?

Choi, Hoon (Kangwon Univ.)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validity in which the eating meat has been supported between two main powerful standpoints, animal liberation and animal rights theory. Animal liberation theory leaves room behind for objectifying animal as prey for human by the replaceability argument which suggests that if they are raised in similar nature state, killed without any suffering, and replaced by other animals that can enjoy the same amount of pleasure, eating meat can be permitted morally. On the other hand, Steven L. Davis, who is an animal scientist, argues that we must combine eating meat and vegetable based on putting them pasture instead of only vegetable diet if we keep the least harm principle of Tom Regan consistently. So, I try to show that both arguments are likely to be neither plausible nor practical.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certain premises must be required for establishing the replaceability argument. Furthermore, I positively argue that Davis' argument has invalid supposition. At last, the replaceability argument and Davis' one can be hardly realized in real life or if they are possibly done, they requires morally and financially strict regulation to animal husbandry and farming.

Key words: eating animal, animal liberation theory, animal rights theory, the replaceability argument, Peter Singer, Steven L. Davis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육식은 동시에 옹호 가능한가? / 최 훈

최 훈 e-mail: choih@kangwon.ac.kr

투 고 일	2014년 10월 20일
심 사 일	2014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4년 11월 14일